



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,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4. 6. 14. 한국경제는 「정부, 상법·세법 ‘패키지 개정’ 준비」, 「‘포이즌필’ 도입 속도 내는 정부」 기사에서
 - “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...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...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·증여 때 20%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.”
 - “정부가 ‘이사의 충실 의무’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,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,
 - 세제지원,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,
 -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김현익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형선 (044-215-2751)
기획재정부	세제실 금융세제과	책임자	과 장 조용래 (044-215-4230)
		담당자	사무관 강효석 (044-215-4231)
금융위원회	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 최치연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원 (02-2100-2691)
법무부	법무실 상사법무과	책임자	과 장 김봉진 (02-2110-3167)
		담당자	조사역 박광호 (02-2110-4458)
금융감독원	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	책임자	국 장 오상완 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 조성우 (02-3145-847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